2024 불교도 대법회

국민오계 수계법회 · 승보공양법회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 일환으로 '국민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인례사스님이 연비의식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대표 공양단이 승보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민 오계' 가득찬 광화문 장엄한 법석이 펼쳐졌다

국민오계 수계법회

3만여 불자 운집…첫 순서로 수계법회
나와 사회 상생공동체 '국민오계' 약속
진우 스님 "계 지킴, 고통 벗어나는 길"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나와 우리 사회를 위한 '국민오계'를 약속합니다."

초가을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채운 3만 5000여 불자들이 국민오계를 받은 공덕을 온 법계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마음평화와 국민행복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불교도대법회'를 봉행했다.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의 개회선언 후, 첫 순서로 '국민오계 수계법회'가 열렸다. 이번 국민오계 수계법회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수계법사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와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수계법회는 도량결계(대종 5타), 개식,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발원, 계첩 수여,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은 장궤합장과 큰 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되는 수계법회의 여법함과 장엄함을 위해 무대 앞 중앙 600석은 좌식으로 준비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등 계층별과 신도회, 각급 기관 및 단체, 외국인 노동자 등 부분별로 600여 명을 사전 선발했다.

국민오계는 생명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좋은 습관을 들여 나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한 약속으로 마련됐다. △불살생계(不殺生戒)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불투도계(不偸盜戒)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불사음계(不邪婬戒) 신의를 지키며 심신을 맑게 하자 △불망어계(不妄語戒)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불음주계(不飮酒戒)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자 등 다섯가지 덕목이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국민오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다는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를 강조한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마음을 깨친 이는 행동자체가 보살행이 되며 자비행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연스럽게 육바라밀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지계라고 말했다.

이어 "계는 그릇과도 같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그릇이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물을 부을 수도 없을 뿐 더러 새거나 오염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의 도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행동,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개된 오계는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지켜나가자는 국민오계"라고 설명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계를 지켜나갈 때, 온 국민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밝고 맑은 사회가 될 것이며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 세계 최고의 국민,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수계법사스님들이 연비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인 3만 여 불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비를 해줘, 감동을 선사했다. 200여 법사스님들은 좌식한 대중들에게는 전통 향연비를, 3만 5000여 대중들에게는 삼보륜 모양의 도장을 정성껏 찍어줬다.

계첩은 수계제자 대표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김영석 포교사단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이 받았다. 청소년 대표로는 유승원 학생이, 어린이 대표로는 송다정 어린이가 계첩을 받았다.

의식을 마친 수계대중들은 무대 단상 위 증명단의 스님들을 향해 합장하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이어갔다. 이후 발원문을 통해 나 자신의 마음 평안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다함께 국민오계를 잘 받들어 지킬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만물의 실상을 바로 보고 약자의 고통을 보듬으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면서 "신뢰와 존중, 존경과 공경의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의 평화를 이끌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서원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서원했다.

3만 5천여 불자대중 승보께 공양 올리다

승보공양법회

서로 공경하는 인간관계 회복 발원
佛法僧 삼보께 지극한 공양 올려
"상호 존중 상생공동체 만들겠다"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임은호 ·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원컨대 향기로운 이 공양물들 끝없는 시방법계에 두루하여서 바다처럼 다함없는 삼보님 전에 빠짐없이 공양하여지이다."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을 빼곡이 들어선 3만5000여 대중이 승보에게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올린 대중은 우리 사회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승보공양법회를 봉행했다.

2024 불교도대법회의 첫 번째 법석인 '국민오계 수계법회'에 이어 두 번째 법석으로 마련된 이날 승보공양법회는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법회는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의 인사로 시작됐다. 정원주 회장은 "'승보공양'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온 불교의 오랜 전통이며 우리 불자들의 필수 덕목"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증오와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의 인연은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식행위"라고 승보공양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승보공양법회를 계기로 내 자신을 비워 이웃을 소중히 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상생공동체를 염원하는 우리의 발원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불자들이 더욱 더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진언'을 염송한 뒤 본격적인 승보공양이 이뤄졌다.

이날 승보에게 올린 공양물은 스님들이 출가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흙으로 곱게 빚어 만든 화발우와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를 준비됐다.

공양단은 어린이 불자를 대표해 성동훈·최이준·오승현·배민설 어린이가, 청소년을 대표하여 김동훈·송인웅·정애린·차유진 학생이, 대학생불자를 대표하여 민준기·양승구·정현정·신지현 학생이 참여했다. 청년불자를 대표하여 한상훈·박효원·조서희·박영미 씨가, 신도를 대표하여 이승현 조계사 신도 총회장과 박영환·박소윤·홍순분 씨가 참석했다.

또한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당선인과 정충래·김상규 부회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정승윤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대표도 승보에게 공양을 올렸다.

"삼보님은 큰 자비로 공양 받으사, 저희들의 선근을 늘려주시고, 진리가 이 세간에 머물게 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하소서."

공양을 받은 승가는 승보를 올린 대중들을 축복하는 축원을 전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축복경〉 중 일부를 낭독하며 대중들을 축원했다.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올린 공양의 공덕으로 세상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주경 스님은 "오늘 공양 올린 불자들의 공덕으로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나라가 평화롭고 국민들의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는 우리 사회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를 기원하며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서로 공경합니다"를 합송하면서 마무리됐다.



